

보도시점

2025. 10. 30.(목) 13:30

배포 2025. 10. 30.(목)

APEC CEO 서밋 계기, 글로벌 수소경제 리더십을 강화한다

- 글로벌 기업, 해외 기관 등과 함께 수소경제 협력 확대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30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CEO 서밋 코리아’의 수소 분과(세션)에 금한승 제1차관이 참석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의 수소정책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기업인 포럼으로, 회원국 정상,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대표 등 약 1,500명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이다. 10월 28일~31일간 개최되는 올해 서밋에서는 경제·금융, AI, 에너지, 디지털, 탄소중립 등 여러 주제에 대한 총 21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소 분과도 그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번 수소 분과는 수소가 모빌리티를 넘어 산업·발전 전반의 핵심 청정 에너지로 자리매김하는 글로벌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분과에는 수소 관련 글로벌 대표자 협의체(Hydrogen Council*),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수소 기업·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소 공급망 구축 및 기술혁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 140여개 글로벌 수소 관련 기업 대표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

금한승 제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적극 추진중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청정수소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APEC 지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수소 공급망, 정책 등 긴밀히 공조하여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1-3950)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3953)

□ APEC CEO 서밋* 수소세션 개요

* 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 진행되는 아태지역 CEO 연례포럼('96~)으로, 주제별 세션 등 구성

- (일시/장소) 10.30.(목) 13:50~14:20 / 경주 예술의전당(화랑홀)
- (주요 참석자) 기후부 1차관, 현대차 부회장, Hydrogen Council* CEO
 - * 140여개 글로벌 수소관련 기업 CEO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
- (주제) Hydrogen, Beyond Mobility. New Energy for Everyone
- (진행방식) 기후부(1차관) 기조연설 및 민간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

일정		내용	비고
13:50 ~ 14:00	10'	기조연설	기후부 제1차관
14:00 ~ 14:20	20'	패널토론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Ivana Jemelkova (Hydrogen Council CEO)

□ [참고] APEC CEO 서밋 개요

- (일시/장소) 10.28~31일(3박 4일) / 경주 예술의전당
- (참석자) APEC 회원국 정상, 글로벌 기업 CEO 등 약 1,500명
- (주제) Bridge, Business, Beyond (B·B·B*)
 - * 기업·정부가 현실과 이상을 연결(Bridge)하고, 혁신성장의 주체(Business)로서 APEC 공동체의 더 나은(Beyond) 미래번영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
- (주요내용) 총 21개 세션*(수소세션 포함) 및 특별 연설 등으로 구성
 - * 글로벌 경제·금융, 공급망, AI, 에너지, 탄소중립, 디지털 등 여러 주제로 구성